

# 본회퍼의 제자도와 오늘의 제자훈련

- 덕 윤리의 조망\*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덕 윤리로 읽는 본회퍼의 제자도와 오늘의 제자훈련

1. 왜, 덕 윤리인가? : 선행연구의 검토
2.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
3. 본회퍼에 비취 본 제자훈련의 과제

##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10>

-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172)
  - \* 본회퍼는 덕 윤리학자가 아니다. 본회퍼의 윤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존중해야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 글은 고전적 덕론이 아닌 현대 기독교 혹은 개혁된 덕 윤리를 통해 본회퍼의 제자도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가 “본회퍼 전공자들의 질정을 바란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조망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

• ABSTRACT •

---

A Virtue-Ethical Reading of Bonhoeffer's Discipleship  
and Contemporary Discipleship Formation

Professor, Moon, Si Young (Namseoul University)

Despite the prolifer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s, Korean Christianity continues to face criticism for its lack of social spirituality. This paper offers a virtue-ethical reading of Dietrich Bonhoeffer's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First, drawing on R. W. Moberly's interpretation, it examines the formation and cultivation of a character marked by absolute obedience to Jesus Christ. Second, engaging Stanley Hauerwas's interpretation, it considers Bonhoeffer's vision of a community shaped by confession and forgiveness, thereby seeking to constitute a 'truth-telling community.' These perspectives yield significant insights for contemporary discipleship training: moving beyond the limited horizons of programmatic approaches and Bible study groups, greater emphasis must be placed on the cultivation of Christian character.

**Key words:** Discipleship, Social Spirituality,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Hospitality

---

## I. 들어가는 말

제자훈련 교재에 등장한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과연 어떤 의미로 읽히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나를 따르라』(*The Cost of Discipleship*)가 대표적인 경우일 듯싶다. 『값비싼 은혜』(*Costly Grace*)라는 제자훈련 교재의 추천사에서, 워렌(Rick Warren)은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가 젊은 시절 자신에게 도전을 주었다고 회고한다.<sup>1)</sup> 그 외에, 챗터마다 본회퍼의 기도문을 소개한 묵상교재도 있고<sup>2)</sup> 『나를 따르라』와 『성도의 공동생활』(*Life Together*)을 다루면서 성육신적 신학교육을 제안한 경우도 있다.<sup>3)</sup>

이러한 사례들은 제자훈련에서 본회퍼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심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제자도를 매주 스타벅스에서 멘토와 만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영성과 인격발달의 관계에 관해 배우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오류”를<sup>4)</sup> 넘어서게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의 ‘교재가 고민’이라는 경우에 대해, 혹은 성경공부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제자도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경건서적이 아니라”는 주장은<sup>5)</sup> 제자훈련에 본회퍼를 적용하는 일에 다소간 망설

1) Rick Warren, “Foreword,” in Jon Walker, *Costly Grace: A Contemporary View of Bonhoeffer's 'The Cost of Discipleship,'* (Abilene, TX: Leafwood Pub, 2010), 11.

2) Andreas Loewe and Katherine Firth, *Journeying with Bonhoeffer's: Six steps on the Path of Discipleship* (Sydney Australia: Acorn Press, 2024), 8-122.

3) Paul R. House, *Bonhoeffer's Seminary Vision: A Case of Costly Discipleship and Life Together* (Wheaton, IL: Crossway, 2015), 21-198.

4) Paula Fuller,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 Alan Andrews, ed. *The Kingdom Life*, 홍명룡 역, 『제자도와 영성형성』(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236~237.

임을 가지게 한다. 본회퍼가 지녔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급진적이고 긴박했던 실천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일 듯싶다. 그래서, 질문하게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제자훈련이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하여 본회퍼로부터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제자훈련이 단지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기보다 그 본질적 가치인 제자도의 구현에 다가서게 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virtue ethics)’의 조망을 중심으로 ‘제자도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특히, 부작용이 문제시 될 정도로<sup>6)</sup> 제자훈련이 넘쳐나는 상황에 대하여 윤리에 관한 문제적 정황이 계속되고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의 결여를 지탄받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 그 자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에 기여하고자 본회퍼의 제자도와 한국기독교의 제자훈련에 대하여 덕 윤리의 조망을 시도한다.<sup>7)</sup>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치정권 하에서 히틀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본회퍼처럼, 한국기독교가 처한 오늘의 문제적 정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being disciple)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다.

5) 김성호, “『나를 따르라』: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적 담론의 재구성을 통한 제자도?,” 『신학과 실천』92(2024), 742.

6) “인본접취 방치·강요 목사·조교 법정구속,” 〈뉴스1〉 2024.5.30.일자.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432185>(\*2026.1.3. 접속)

7)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접근을 다룬 문시영의 다음 글들을 통시적 배경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덕 윤리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52(2022), 9-39; “아우구스티누스와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의 사회적 영성: 제자 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135-167;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8(2024), 245-279; “칼뱅의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 덕 윤리의 조망,” 『기독교사회윤리』 61(2025), 201-231.

## II. 덕 윤리로 읽는 본회퍼의 제자도와 오늘의 제자훈련

### 1. 왜, 덕 윤리인가? : 선행연구의 검토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본회퍼는 가장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복원하고 구현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따르라』는 대중적 저작으로 인식되지만, 그 안에는 본회퍼 신학 전체의 연관성이 녹아있으며,<sup>8)</sup> 해외의 선행연구들까지 포함하면 본회퍼 해석의 역사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채롭다.<sup>9)</sup> 전반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폭넓은 관점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본회퍼 연구자들은 『나를 따르라』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균형잡힌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일변도의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긍정과 부정의 반향이 모두 포함된다.<sup>11)</sup>

사실,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를 비롯한 제자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신학 이외에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가 있을 정도로,<sup>12)</sup> 광폭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덕 윤리(virtue ethics)를 통하여 본회퍼를 읽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8) 국내 선행연구로 다음 글들을 참고하였다. 강성영, “본회퍼를 통해 듣는 교회를 향한 부름: 나를 따르라,” 『세계와 선교』222(2015), 25-32; 김성호, “『나를 따르라』-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적 담론의 재구성을 통한 제자도?,” 『신학과 실천』92(2024), 741-773; 강안일,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학』까지: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적 사고의 발전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32(2015), 7-54.

9) Cristian Sandu, “Ethics in the Thought of Dietrich Bonhoeffer,” *SCIENTIA MORALITA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8-1(2023), 116-124.

10) 손규태, “해설,”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손규태, 이신건 공역, 『나를 따르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88.

11)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45-2(2013), 117-143.

12) Kenneth Earl Morris, *Bonhoeffer's Ethics of Discipleship: A Study in Social Psychology, Political Thought, and Religion*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4-26.

있는 현상은 무척이나 흥미롭다. 모벌리(Jennifer Moberly)와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가 대표적인 경우일 듯싶다. 물론, 본회퍼 자신이 덕 윤리학자가 아닌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지만, 덕 윤리를 통하여 본회퍼를 재발견하여 오늘의 문제에 적용하려는 취지만큼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모벌리가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Ethics*)에 대한 덕 윤리의 해석을 중심으로 여러 저작들을 분석하여 접점을 모색한 시도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sup>13)</sup> 모벌리의 관점은 본회퍼와 덕 윤리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칭의와 성화, 인간이해, 그리고 ‘순종’과 ‘단순성’의 개념 등에서 덕 윤리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본회퍼의 윤리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책임적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덕 윤리의 조망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다만, 모벌리가 본회퍼를 덕 윤리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바르트(Karl Barth)의 ‘신명령론(divine commandment theory)’의 윤리가 결합된 혹은 변증법적 통합을 이룬 것으로 읽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sup>14)</sup>

모벌리의 시도에 대해, 덕 윤리학자 비어만(Joel Biermann)은 본회퍼에게서 덕 윤리의 요소 혹은 그 친화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 더 촘촘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sup>15)</sup>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회퍼에게 덕 윤리를 위한 공간이 있음을 말

13)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A Study of Dietrich Bonhoeffer's Ethics in relation to Virtue Ethics* (Eugene, OR: Picwick Pub., 2013), 99-140. 이 책의 근간이 되는 Duhram University의 박사학위논문도 'e-thesis'로 제공되고 있다.

14) 같은 책, 219-232.

15) Joel Biermann, "Book Review: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A Study of Dietrich Bonhoeffer's Ethics in Relation to Virtue Ethic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8-2(2015), 240-245.

하는 것만으로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본회퍼를 ‘형성의 윤리’로 읽는 본회퍼 연구자들에게서 ‘왜곡’ 내지는 ‘오독’이라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하우어워스가 본회퍼의 제자도를 덕 윤리의 지평에서 관심하는 것 또한 흥미롭다. 『신앙의 실천: 본회퍼와 비폭력의 실천』(*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에서 하우어워스는 본회퍼를 히틀러에게 저항하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간 인물로 읽는다. 특히, 본회퍼의 ‘진실 말하기의 의미’(What Is Meant by ‘Telling the Truth’?)에 주목한<sup>16)</sup> 하우어워스는 제자도가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맥락에서 해석한다. 덕 윤리가 내러티브와 공동체에 주목하고 공동체를 통한 성품의 함양에 관심하는 요소를 보여준 듯 싶다.

다만, 하우어워스의 본회퍼 읽기가 평화주의를 강요한 것이거나 혹은 오독이라는 비판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본회퍼를 비폭력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정의에 대한 본회퍼의 관심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sup>17)</sup> 사실, 요더(John Howard Yoder)의 비폭력평화주의에 비견하여 본회퍼를 ‘동맹(ally)’으로 여길 필요까지는<sup>18)</sup>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들이 하우어워스가 추구하는 덕 윤리의 관심으로서의 공동체를 통한 성품함양이라는 논점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벌리와 하우어워스의 시도는 덕 윤리를 통하여 본회퍼 다시 읽기를

16)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Eugene, OR: Wipf & Stock, 2004), 61.

17) 김현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하나의 공적인 읽기,” 『신학사상』 160(2013), 199-236; “정의로운 평화를 향하여: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디트리히 본회퍼 읽기의 비판적 고찰,” 『장신논단』 44-1(2012), 163-185.

18)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55.

시도하고 현대적 의의를 찾으려는 취지이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덕 윤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은 본회퍼가 비판한 ‘화려한 악덕(splendidum vitium)’의 문제에 연루시키는 것이라고 거부한 경우가 그것이다.<sup>19)</sup> 본회퍼 자신이 고전적 덕론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sup>20)</sup> 덕 윤리와의 대화 자체가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덕 윤리를 통하여 본회퍼의 제자도를 조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대윤리학에서 덕에 대한 관심이 ‘행위(doing)’에 집착하는 의무론에 관한 자성으로부터 비롯되어 ‘존재(being)’로의 전환과 맞물린다. 특히, 행위 주체의 성품(character)에 관심한다는 뜻에서, 성경공부와 프로그램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실천을 결여하고 있는 오늘의 제자훈련을 위한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회퍼의 제자도가 지닌 급진성과 절박성에 비추어 보면 성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가한’ 혹은 ‘적실성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덕 윤리의 조망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서 연원하여 중세에 만연되었고 종교개혁자들에게 비판받았던 고전적 덕론과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모벌리의 경우,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현대적 덕 윤리에 근간하면서도 덕을 인간적 성취가 아닌 은혜의 열매로 본다. 하우어위스가 ‘예수 내러티브(Jesus narrative)’에 근거한 성품함양에 관심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개혁된 덕 윤리(reformed virtue ethics)’<sup>21)</sup> 혹은 ‘거듭난 덕 윤리(virtue reborn)’의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

19) Knappenberger for Dr. Mark Thiessen Nation, “Virtue & Discipleship,”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였음. [https://www.academia.edu/30444173/Virtue\\_and\\_Discipleship](https://www.academia.edu/30444173/Virtue_and_Discipleship) (\*2025.7.1. 접속)

20) Dietrich Bonhoeffer, *Ethik*, 정현숙 역, 『윤리학』(서울: 복있는 사람, 2022), 127. \*가장 최근 번역본을 읽은 것으로서, 기존의 다른 번역본도 참고하였다. 손규태·이신건·오성현 역, 『윤리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영역판으로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translated by Victoria J. Barnett, *Ethic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5).

21) Kirk J. Nolan, *Reformed Virtue After Barth: Developing Moral Virtue Ethics in the*

다.<sup>22)</sup> 하우어위스를 수용하면서도 본회퍼의 ‘형성의 윤리학’을 ‘제3의 길’에 속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sup>23)</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조망을 통하여 변화와 실천이 없는 오늘의 제자훈련에 적용할 통찰을 읽어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회퍼의 제자도를 중심으로 그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재구성하여 오늘의 제자훈련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통찰을 발견하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말하자면, 덕 윤리를 통해 본회퍼 읽기의 외연을 확장하고 한국기독교의 제자훈련이 윤리의 성숙 특히 사회적 영성에 관심해야 함을 제언하는 데로 나아가려는 취지이다.

## 2.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모벌리와 하우어위스의 덕 윤리의 조망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두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모벌리의 관점을 통하여 본회퍼가 강조한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하우어위스의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평화주의의 강요 내지는 오독의 문제를 배제하면서, 본회퍼의 제자도에 나타난 공동체적 맥락을 성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벌리와 하우어위스라는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거나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다. 덕 윤리의 중요한 두 측면을 통하여 본회퍼의 제자도를 다시 읽어내려는 취지이다. 그 하나는 덕 윤리와 성품형성의 문제에 관한 논의로서, 모벌리의 관점을 응용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

*Reformed Tra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4), 208.

22) 이 표현은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다. Tom Wright, *Virtue Reborn* (London, UK: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2010).

23) Ryan Huber, *Dietrich Bonhoeffer's Ethics of Formation* (Lanham, MD: Lexington Books, 2020), 200-201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통하여 덕 윤리와 공동체라는 지평에서 본회퍼의 제자도를 응용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 1) 덕 윤리와 성품형성: 그리스도 중심의 형성

이 글은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은 현대윤리학을 ‘아전인수’ 격으로 대입하여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평가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회퍼 읽기의 외연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본회퍼에게 제자도가 단순히 ‘좋은 사람’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책임적으로 살아가도록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풀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본회퍼를 읽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sup>24)</sup> 출발하고자 한다. 본회퍼의 제자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소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치 치하의 ‘독일 그리스도인(German Christians)’과 ‘교회투쟁(Church Struggle)’은 본회퍼의 사회적 맥락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에 대한 성찰과 제자로서의 형성이 본회퍼의 문제의식으로 자리한다.

교회투쟁이 불가피하게 외치는 시사구호와 투쟁구호의 이면에는 독보적으로 중요한 분, 곧 예수 자신에 대한 탐구와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sup>25)</sup>

24) 고재길, “영성과 정의에 관한 연구: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의 상황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93(2025), 201-225.

25)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김순현 역, 『나를 따르라』(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서문,” 19. \*다음 번역본도 참고했다. 손규태, 이신건 공역, 『나를 따르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영역판도 참고했다. translated by Barbarba Green, *Discipleship*

바르멘선언 제3항을 발전시킨 본회퍼의 이러한 관점은 독일 제3제국에서의 교회투쟁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sup>26)</sup> ‘유대인 문제’는 교회투쟁의 적극적 동인이었으며 ‘고백교회’가 차별받는 유대인들을 변호한 것은 중요한 실천이었다. 이 부분에서, ‘독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회퍼의 비판에 주목해야 한다.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종한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죄책의 수용으로 나아가는 계기이기 때문이다.<sup>27)</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37년 출판된 『나를 따르라』는 핑켄발데(Finkenwalde)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본회퍼의 산상설교 강해를 담고 있다. 덕 윤리의 조망에서 모벌리의 관점을 적용하면, 『나를 따르라』는 자발적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실천의 초대 혹은 부르심(calling)으로서,<sup>28)</sup> 이것은 예수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모벌리는 기존의 본회퍼 연구와는 다른 신박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선행연구들을 가이드로 삼아 덕 윤리와의 접점을 찾아내려 함으로써 본회퍼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잘 알려진 것처럼, 본회퍼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값비싼 은혜의 길을 간 제자들과 값싼 은혜로 어긋나 제자되기를 거부한 자들 사이의 구분은 중요하다. 그것은 기독교가 중독된 값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값비싼 은혜 사이의 구분이다.<sup>29)</sup>

본회퍼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자 청년은 역질문으로 본질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5).

26) 손규태, “해설,”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388.

27)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132.

28)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53-98.

29)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Eine Biographie*, 김순현 역,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자, 그리스도인, 동시대인』(서울: 복있는 사람, 2014), 130.

을 회피했고,<sup>30)</sup> 계명에 대한 복종은 거부되고 만다.<sup>31)</sup> 율법교사도 부르심에 대한 따름을 거절하고 윤리적 갈등의 문제로 도피해 버린다.<sup>32)</sup> 그들은 값싼 은혜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값싼 은혜에 속한 자들이었다.<sup>33)</sup> 본회퍼에 따르면, 수도사였던 루터가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였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이 루터교도가 되었지만,<sup>34)</sup> 그들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전락하였으며<sup>35)</sup> 제자도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왜곡하여 ‘싸구려’로 전락시켰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sup>36)</sup>

본회퍼가 보기에, 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교회는 ‘종교집단이 될 뿐이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s)일 때, 참된 교회일 수 있지만,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대한 ‘따름’이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위선을 저질렀다. “후기 루터주의가 루터의 칭의교리를 왜곡하여 히틀러를 돕는 역할로 변질된 것은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 『나를 따르라』였다.<sup>37)</sup>

30)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78.

31) 같은 책, 81.

32) 같은 책, 89.

33) 같은 책, 32.

34) 같은 책, 48.

35) 같은 책, 57.

36) 같은 책, 32.

37) 강안일,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학』까지: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적 사고의 발전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 32(2015), 7-54.

덕 윤리로 읽으면, 『나를 따르라』에서 중요한 단초는 칭의와 성화의 일치이다.<sup>38)</sup>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선언으로서, 값비싼 은혜(costly grace)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다. ‘값비싼 은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름’으로 응답함으로써 성화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sup>39)</sup>

베드로의 삶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이 자리한다.<sup>40)</sup> 베드로의 생애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과 은혜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짝이었다. 그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다. ...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부르심이 있자, 부름받은 자의 복종 행위가 즉각 이어진다. 제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의 행위로 응답한다.<sup>41)</sup>

이처럼,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값비싼 은혜의 증인들이다. 베드로와 레위(마태)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직의 ‘부르심’에 ‘따름’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다. 본회퍼의 강조점은 분명하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sup>42)</sup>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통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한다. 본회퍼에 따르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속하는 것이어야 하며,<sup>43)</sup> 값비싼 은혜의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는 따름을 요청한다.

38)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99-111.

39)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32.

40) 같은 책, 34.

41) 같은 책, 53.

42) 같은 책, 65.

43) 같은 책, 56.

덕 윤리의 관점에서, 본회퍼의 산상설교 강해는 칭의와 성화의 일치라는 제자됨의 본질을 풀어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회퍼의 강해에서 마태복음 5장은 제자의 비범성을 말해준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비범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게 한다. 금욕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며, 능동적 고난(passio active)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르는 수동적 고난(passio passiva)이자 필연적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직을 다루는 부분 역시 덕 윤리에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읽는다. 본회퍼에 따르면, 제자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몸과 연합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되고<sup>44)</sup>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sup>45)</sup>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도는 이후 『윤리학』에서 ‘대리적 책임’의 윤리로 구체화된다. ‘공모(conspiracy)’의 시기에 집필된 이 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서 대리사상과 책임적 삶을 강조한다.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강조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sup>46)</sup> 이 부분은 형성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대리적 책임의 윤리는 제자도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도달하는 형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의 주체이고 지향점임을 확인하는 셈이다.<sup>47)</sup>

형성(formation)이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sup>48)</sup> ...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응답

44) 같은 책, 350.

45) 같은 책, 464.

46) 강안일,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학』까지: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적 사교의 발전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32(2015), 7-54.

47) 김병권, “Bonhoeffer의 형성으로서의 윤리와 기독교윤리학 방법론,” 『복음과 실천』 52-1(2013), 165-192.

할 때, 그 삶을 책임이라고 부른다.<sup>49)</sup> ...책임은 대리(Stellvertretung, vicarious representation)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50)</sup> ...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 그로써 인간을 위해 대리하는 책임을 짊어지셨다.<sup>51)</sup> ... 대리, 곧 책임은 오직 타인을 위해 자기 삶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이루어진다. 이타적인 자만이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sup>52)</sup>

본회퍼가 보기에, 이러한 제자직의 실천을 통해서만 교회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으며<sup>53)</sup>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xis)’은 그 실천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sup>54)</sup> 이것은 “체계와 추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현실에서의 실천을 요청한”<sup>55)</sup> 것으로서, “책임적 행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임으로써 행동의 한계가 새롭게 설정된다.”<sup>56)</sup>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Christ-centered perspective)’을 통하여<sup>57)</sup> 제자도를 읽어야 한다. 덕 윤리에서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의 실천에서 비롯된 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sup>58)</sup>

본회퍼의 제자도를 ‘형성된 덕의 책임적 행동’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48) Dietrich Bonhoeffer, 『윤리학』, 161.

49) 같은 책, 419.

50) 같은 책, 423.

51) 같은 책, 427.

52) 같은 책, 426.

53) 손규태, “제자의 길, 공동체의 길: 본회퍼에 있어서 영성의 문제,” 『기독교사상』 574(2006), 60-71.

54) Douglas John Hall, “Dietrich Bonhoeffer and the ethics of participation,” McGill University; for a Seminar at the University of Calgary on March 8, 2004. <https://arts.ucalgary.ca/sites/> (\*2025.8.19. 접속)

55)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17-22.

56) Dietrich Bonhoeffer, 『윤리학』, 267-268

57) Geoffrey B. Kelly, “정의를 위한 기도와 행동: 본회퍼의 영성,” John W. de Gruchy, ed., 『본회퍼 신학개론: 캠브리지 지침서』, 463.

58)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101-106.

부분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덕과 성품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처럼 형성의 문제를 성품함양의 맥락에서 읽는 덕 윤리의 관심을 급진적이고 절박한 실천에 미치지 못하는 ‘한가한’ 견해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덕 윤리가 말하는 성품함양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벌리는 제자도를 하나님의 구체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인격을 형성하는 자리로 읽는다. 성품이란 순종이라는 구체적 행위 속에서 형성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능동적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것은 본회퍼의 제자도를 중세적 의미의 수도원적 수양 혹은 아시아적 의미의 도덕적 도야가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간 안에 각인되는 ‘형성(Gestaltung)’의 관점에서 읽어야 함을 말해준다. 모벌리의 덕 윤리는 본회퍼의 제자도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와 즉각적 순종,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가치들을 그리스도인의 성품형성 내지는 그 함양의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현대적 대화의 문을 연다. 특히, 제자의 소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리스도인을 자아를 위한 존재가 아닌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제자도를 성품형성과 함양의 관점에서 읽게 해준다,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의 제자훈련을 위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성품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 2) 덕 윤리와 공동체: 사회적 영성의 제자공동체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사회적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맥락이다. 모벌리가 형성의 윤리를 비롯한 기존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덕 윤리와의 접점을 찾으려 했던 것과 달리, 하우어워스는 덕 윤리에 기반한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본회퍼의 제자도를 재조명한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양하고 구현해야 할 덕으로서의 진실 말하기에 대한 주목이다.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을 풀어낸 셈이다.

하우어워스는 본회퍼의 삶에서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면서<sup>59)</sup> 덕의 형성과 함양을 위한 내러티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이것은 모벌리가 덕 윤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를 말해준 것과는 또다른 지평에서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조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훈련을 강조하는 공동체적 영성”<sup>60)</sup>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해석은 본회퍼의 제자도가 지닌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게 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본회퍼가 강조한 값비싼 은혜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 제자도의 윤리로서 책임을 요구한다. 하우어워스는 이것을 교회의 ‘가시성(visibility)’과 연관 짓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되 십자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본회퍼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하우어워스는 가시성을 회피하는 것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화’를 바르게 구현해야 한다. 특히, 성화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sup>61)</sup> 형성의 윤리를 강조하는 후버(Ryan Huber) 역시 이것을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구현해야 할 세상 참여의 길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62)</sup>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본회퍼를 공동체적 맥락에서 읽기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말해준다. 실제로, 본회퍼는 박사학위 논문

59)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37.

60) 김형근, 『본회퍼의 통전적인 영성』(옥천: 은소몽, 2016), 49. 본회퍼의 영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이 책의 34-47을 참고할 수 있겠다.

61)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44.

62) Ryan Huber, *Dietrich Bonhoeffer's Ethics of Formation*, 205.

『성도의 교제』(*Santum Communio: A Theological Study of the Sociology of Church*)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영적 고독의 거룩을 문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에 이르기까지 본회퍼는 그리스도 중심적 윤리를 통하여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책임적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sup>63)</sup> 그리고 본회퍼가 베틀게(Eberhard Bethge)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우정’이라는 제목의 시(詩)를 중심으로 하우어워스가 타자에게 열려있는 개방적 관계를 공동체적 과제라고 읽어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sup>64)</sup>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를 응용하면, 『나를 따르라』에서도 공동체적 관점을 볼 수 있다. 본회퍼는 독일 고백교회의 핑켄발데 신학교를 이끌면서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 기숙사의 명칭 자체가 ‘형제의 집’이었고, 본회퍼는 그곳에서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영성훈련을 펼쳐냈다. 신학생으로서의 신학에 대한 지식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sup>65)</sup> 본회퍼가 적용한 공동체적 훈련의 내용은 그가 직접 생각하거나 혹은 수도공동체를 방문하여 받은 교훈들을 적용한 것이었다.

다만, 중세적 의미에서 은둔처로서의 수도원 공동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밖을 향한 봉사를 위한 가장 내면적 집중’을 추구했다. 이러한 뜻에서, 본회퍼는 “중세 수도원의 기도와 노동의 도식을 오늘날의 새로운 기독교의 기도와 정의실천”으로<sup>66)</sup> 대치시켰다. 이것은 ‘새로운 수

63) 김성호, “타자를 향한 교회 -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0(2020), 319-354.

64) Stanley Hauerwas, “Friendship and Freedom: Reflections on Bonhoeffer’s ‘The Friendship,’” in Stanley Hauerwas, *Working with Words*, 295.

65) Eric Metaxas, *Bonhoeffer: Pastor, Martyr, Prophet, Spy*, 김순현 역,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 순교자, 예언자, 스파이』(서울: 포이에마, 2021), 198.

66) 손규태, “제자의 길, 공동체의 길: 본회퍼에 있어서 영성의 문제,” 『기독교사상』 574(2006), 60-71.

도원 운동'을 통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수도적 삶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삶의 전 영역의 수도원화를 추구하는 근간이었다. 본회퍼의 관심은 수도원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에 있었으며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이었다.<sup>67)</sup> 특히, 『성도의 공동생활』에서는 핑켄발데 신학교의 구체적인 영성훈련과 그 활동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기도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 힘을 얻은 후에야,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위한 지상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sup>68)</sup>

이러한 모습들을 덕 윤리를 통해 조망하면, 본회퍼에게서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형성으로서의 성품을 함양하는 자리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이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함양된다는 뜻이다. 다만, 기독교 덕 윤리가 말하는 성품함양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고전적 덕론이 습관화를 자기완성을 말하는 것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성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성'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준비되고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회퍼의 제자도가 공동체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함양된다

67) 강인일, "새로운 수도원 운동: 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37(2017), 07~43.

68) Dietrich Bonhoeffer, *Gemeinsames Leben*, 정현숙 역, 『성도의 공동생활』(서울: 복있는 사람, 2016), 105-106. \*다음 번역본도 참고하였다. 손규태, 정지련 공역, 『신도의 공동생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영역판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translated by Victoria J. Barnett, *Life Together*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5).

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자의 덕이 공동체가 어떤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회퍼에게서 말씀, 찬양, 기도의 공동체적 시행은 제자의 성품함양을 위한 통로이자 훈련의 과정이며 하우어워스의 용어로 예수 내러티브를 따르는 공동체적 성품함양이라고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본회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성을 비판하고 관계적 영성과 공동체적 영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sup>69)</sup> 『성도의 공동생활』은 “개인과 공동체적인 명상, 기도, 홀로 있기, 성서연구, 찬교, 노래 부르기, 레크레이션, 선교, 예배, 성만찬, 신앙고백과 영적 돌봄을 모은”<sup>70)</sup> 것으로서, 오늘의 제자훈련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준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지는 이수과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을 형성하고 함양하는 전인격적 통로이어야 한다. 더구나, 공동체는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본회퍼에게서 공동체는 ‘기도’와 ‘정의의 행함’을 추구하는 ‘밖으로 나가기 위한’ 영성을 지향한다. 기독교 덕 윤리는 이 부분에 각별히 주목한다.

하우어워스가 본회퍼에 대한 덕윤리의 조망에서 ‘진실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방점을 찍은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성도의 공동생활』 마지막 장 ‘고백과 성찬(Confession and Communion)’에 나타난 죄의 고백(confession of sin)과 용서의 실천을 제자 공동체의 표식으로 읽는다. 하우어워스는 이것을 공동체 구성들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써 위선(hypocrisy)을 제거하고 ‘진실 말하기(truth-telling)’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로 해석한다.

69) 고재길, “영성과 정의에 관한 연구: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의 상황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93(2025), 201-225.

70) John A. Moses, “본회퍼의 독일: 정치적 상황,” John W. de Gruch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본회퍼 신학개론: 캠브리지 지침서』, 98.

실제로, 본회퍼는 죄가 개인을 고립시키고 어둠 속에 숨기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빛이 들어와 죄의 권세가 깨진다고 강조한다.<sup>71)</sup>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는 십자가로의 돌파(breakthrough to the cross)로 이어져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sup>72)</sup>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우어워스는 핑켄발테신학교 공동체는 서로의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의 표본이라고 읽는다.

본회퍼의 공동체적 관점을 진실공동체로 읽는 하우어워스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하우어워스는 나치 정권의 거짓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본회퍼의 공동체가 ‘진실의 공간(zone of truth)’이 될 수 있었다고 읽는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sup>73)</sup>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교회는 위선이 없는 평화로운 수사(peaceable rhetoric)를 갖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실 공동체’가 개인의 도덕적 성실성을 넘어 진실을 말하는 공적 증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sup>74)</sup>

참고로, 본회퍼의 공동체적 제자도를 청소년 사역과 연결짓는 시도는 흥미로움을 더해 준다. 루트(Andrew Root)의 저서 『청소년 사역자 본회퍼』(*Bonhoeffer as Youth Worker*)가 그것이다. 루트는 『성도의 공동생활』을 “20세기 기독교 공동체생활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하면서,<sup>75)</sup>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동체

71)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공동생활』, 187.

72) 같은 책, 189. (공동생활)

73)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25.

74) 하우어워스의 본회퍼 해석은 이른바 ‘탈진실(post truth)’의 시대에 진실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제자됨의 과제를 말해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물론, 하우어워스가 탈진실이라는 용어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지만, 응용의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안으로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서로의 삶을 공유한 사례로 읽는다. 덕 윤리의 관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본회퍼 해석에 유익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하우어위스에게 돌아와서, 본회퍼의 제자도를 ‘진실 말하기’의 공동체와 연관지어 읽어낸 것은 사회적 영성의 구현과 맞물린다. 하우어위스가 보기에, 본회퍼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결과적으로 ‘히틀러’라는 끔찍한 거짓말을 용인했다는 사실은 짙어났다.<sup>76)</sup> 이것은 ‘진실 말하기’가 개인의 혹은 내면적 진정성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영성’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영성이 제자도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해준다. 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아담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자’ 되기를 추구함으로써<sup>77)</sup> ‘타자를 위한 교회’로<sup>78)</sup>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사실, “본회퍼에 관하여 덜 알려지고 평가받지 못한 것은 그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갔으며,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헌신이었다.”<sup>79)</sup> 본회퍼가 히틀러 시대에 진실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적 영성을 구현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뜻에서, 본회퍼의 제자도는 ‘사회성의 신학’으로부터 ‘타자를 위한 교회됨’으로 이어지며<sup>80)</sup> ‘밖으로 나

75) Andrew Root, *Bonhoeffer as Youth Worker: A Theological Vision for ‘Discipleship’ and ‘Life Together’*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192.

76) Stanley Hauerwas, “Bonhoeffer on Truth and Politics,” *Paper for Conference on Lived Theology and Civil Courage*(2003), 1-19. \*<https://www.livedtheology.org/>(\*2025.7.26접속)

77) 김성호, “『나를 따르라』: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적 담론의 재구성을 통한 제자도?,” 『신학과 실천』92(2024), 741-773.

78) 강성영, “본회퍼를 통해 듣는 교회를 향한 부름: 나를 따르라,” 『세계와 선교』222(2015), 25-32.

79) Luke T. Johnson, *Imitating Christ: The Disputed Character of Christian Discipleship*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2024), 196.

80) Christiane Tietz, *Theologian of Resistance: The Life and Thought of Dietrich*

가기 위한' 영성에 기반한다. '기도'와 '정의의 행함'이라는 본회퍼의 관점 이<sup>81)</sup> 덕 윤리의 조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셈이다. 진실 공동체로서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제자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이다.

### 3. 본회퍼에 비취 본 제자훈련의 과제<sup>82)</sup>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조망은 사변적 성찰의 목적에서 시도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제자훈련을 평가할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제자훈련의 바람직한 시행 내지는 성숙을 위한 지침을 본회퍼에게서 찾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일일이 찾아내려는 것은 아니다. 덕 윤리의 조망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제자훈련이 성품함양이라는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조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셈이다.

사실,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세운 공은 작지 않다.<sup>83)</sup> 하지만, 한국기독교가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자훈련'에 집중하여 열

*Bonhoeffer*, 김성호 역, 『디트리히 본회퍼: 저항의 신학자』, (서울: 동연, 2022), 71-153.

81)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Geoffrey B. Kelly, "정의의 위한 기도와 행동: 본회퍼의 영성," John W. de Gruch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유석성·김성복 역, 『본회퍼 신학개론: 캠브리지 지침서』(서울: 종문회사, 2017), 453-493.

82) 제자훈련 전반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려는 것은 아니며 '제자훈련 2.0'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오정현, 『온전한 제자의 기초』, 『온전한 제자의 교리』, 『온전한 제자의 삶』(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25)으로 구성된 '제자훈련 2.0세트'를 참고하여 준평을 하자면, '값을 치러야 할 때'를 말하면서 제자훈련을 직업을 포함한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부분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being'과 'doing'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말한 것은 덕 윤리가 행위에서 존재로의 전환을 말할 때의 용법에 비해 낮은 표현이다. 2025년 12월 출판이라는 점에서, 예단하기는 선부르다. 이 글에서는 오늘의 제자훈련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을 서술하고자 한다.

83) 송인규, '머릿말' 송인규 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보고서: 무엇을 위한 누구의 제자인가?』(서울: IVP, 2016), 9.

풍을 일으켜 온 이면에, 사회적 신뢰도는 오히려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신앙과 삶의 괴리는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 원인으로 제자훈련을 단순한 성경지식의 전달 혹은 특정 프로그램의 이수로 이해하는 ‘인지중심적 모델’ 내지는 ‘율법주의적 접근’에 치중해온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제자도가 성품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덕 윤리의 조망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조망에서 크게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고 사회적 영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제자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의 모색들 중에서, 덕 윤리를 통하여 짚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회퍼에 비춰 보면, 오늘의 제자훈련은 그리스도 중심이라기보다 다른 것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성에 관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운 정황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 하나는 인격성숙과 성품형성의 제자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회퍼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을 프로그램, 자격이수과정, 목회자, 교재 등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열매로 형성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의 제자훈련이 성경공부에 치중되어 있는 현상을 넘어서 제자됨의 성품함양을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제자훈련을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깊은 자성과 긴급한 전환이 필요하다.<sup>84)</sup> 현실적으로, 목회자는 교회성장에 대

84) 본회퍼의 제자도를 제자훈련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회퍼 연구자 고재길의

한 압박을 지니고 있기에 제자훈련을 수단화할 어긋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을 형성하고 함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자훈련 그 자체에 집중하면, 교회성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훈련은 충분히 정당하고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영성의 공동체를 위한 제자훈련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형성과 함양의 장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분명히, 제자훈련은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이수해야 할 과정이기를 넘어 공동체적 신앙의 모든 과정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제자훈련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성경공부는 제자훈련의 연료 중 하나일 뿐, 그것이 유일한 엔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성품의 함양은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밖으로 나가기 위한 공동체적 제자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시민사회에서의 제자도는 공적 책임,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에 이르는 사회적 영성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적 영성은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도의 복원을 위한 요소라는 점에서,<sup>85)</sup> 오늘의 제자훈련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가지 과제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말할 수 있겠다. 그 모든

---

지도를 받은 다음의 석사학위 논문들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옥봉환, “제자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본회퍼의 견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제자의 윤리에 관한 연구: 디트리히 본회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장로회신학대학교, 2017).

85) 문시영, “제자도의 기원과 복원: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205-237.

과제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도에 충실한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것이며 덕 윤리가 제시한 두 가지 과제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제자훈련을 제자도에 충실한 성품함양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형성으로 인식되어야 한다.<sup>86)</sup>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품과 행위 면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87)</sup>

참고로, 본회퍼의 관점과 연관지어 윌라드(Dallas Willard)의 진단은 덕 윤리의 조망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말해준다. 그에 따르면,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가 손쉬운 기독교 혹은 값싼 은혜를 질타한 명저임에 틀림없지만, 이 책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 제자도를 값비싼 영적 잉여물, 특히 ‘수퍼 크리스천’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그릇된 시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sup>88)</sup>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몫이며 “내면 가장 깊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sup>89)</sup> 나아가, 내면적 영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성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Lordship)’을 고백하며 예수 내러티브에 따른 세상과 사회에 관심해야<sup>90)</sup> 마땅하다.

86) Keith J. Matthews, “영적 변화의 과정,” Dallas Willard, Alan Andrews, and Bruce McNicol, eds, *The kingdom life* / 홍명룡 역, 『제자도와 영성형성』(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112.

87) Keith J. Matthews, “영적 변화의 과정,” 113.

88) 앞의 책, 28.

89) Dallas Willard, *The Great Omission*, 윤종석 역, 『잊혀진 제자도』(서울: 복있는 사람, 2007), 86.

90)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성남: 북코리아, 2010), 100.

### III. 나가는 말

제자훈련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윤리 문제가 지속되고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오늘의 제자훈련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본회퍼의 제자도를 성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제자훈련이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하여 본회퍼로부터 배워야 할 요소를 찾아내려는 시도이지만,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재발견에도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형성의 윤리로서의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존중하면서도 그 외연을 확장하려는 뜻에서 덕 윤리의 조망을 시도하였다. 제자훈련의 과잉에도 여전히 변화와 실천이 부족한 것은 성품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에서, 성품의 변화에 관심하는 덕 윤리를 응용하려는 뜻이다. 다만, 중세에 만연하여 종교 개혁자들과 본회퍼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던 고전적 덕론을 넘어서 개혁된 덕 윤리를 통하여 은혜의 열매로서의 성품함양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회퍼를 덕 윤리의 관점에서 조망한 머벌리의 경우, 본회퍼에게서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를 읽어내도록 이끌어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덕과 성품을 강조하는 이 해석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소명과 순종을 위한 제자도의 핵심이 은혜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품형성임을 일깨워준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실천적 변화라는 사실이 기독교 덕 윤리를 통해 확인되는 셈이다.

하우어워스의 경우, 기독교 덕 윤리의 중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퍼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는 제자도의 공동체적 특성이 부각된다. 하우어워스는 본회퍼가 죄의 고백과 용서의 공동체를 구현한 것을 두고

진실 말하기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제자도는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 말하기를 넘어 사회를 향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회적 영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도의 과제로 연결된다. 하우어워스의 기독교 덕 윤리를 통하여, 제자도에는 사회적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과제가 주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에서 확인된 이러한 두 요소는 오늘의 제자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준다.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과 성경공부라는 지평을 넘어서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성품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제자 공동체로서 사회적 영성을 추구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탈진실의 시대를 향한 진실공동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이처럼, 제자도의 복원과 구현을 보여준 본회퍼의 제자도를 준거로 삼아, 오늘의 제자훈련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자성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을 위한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성영. “본회퍼를 통해 듣는 교회를 향한 부름: 나를 따르라.” 『세계와 선교』 222(2015), 25-32.
- 강안일.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학』까지: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적 사고의 발전에 대한 소고.” 『기독교사회윤리』32(2015), 7-54.
- 고재길.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45-2(2013), 117-143.
- \_\_\_\_\_. “영성과 정의에 관한 연구: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의 상황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93(2025), 201-225.
- 김병권. “Bonhoeffer의 형성으로서의 윤리와 기독교윤리학 방법론.” 『복음과 실천』 52-1(2013), 165-192.
- 김성호. “『나를 따르라』: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적 담론의 재구성을 통한 제자도?” 『신학과 실천』92(2024), 741-773.
- \_\_\_\_\_. “타자를 향한 교회 -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0(2020), 319-354.
- 김현수. “정의로운 평화를 향하여: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디트리히 본회퍼 읽기의 비판적 고찰.” 『장신논단』44-1(2012), 163-185.
- \_\_\_\_\_. “디트리히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하나의 공적인 읽기.” 『신학사상』160(2013), 199-236.
- 손규태. “제자의 길, 공동체의 길: 본회퍼에 있어서 영성의 문제.” 『기독교사상』 574(2006), 60-71.
- Andrews, Alan, ed. *The Kingdom Life*, 홍병룡 역, 『제자도와 영성형성』.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Bonhoeffer, Dietrich. *Ethik*, 정현숙 역, 『윤리학』. 서울: 복있는 사람, 2022; 손규태·이신건·오성현 공역,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 *Nachfolge*, 김순현 역, 『나를 따르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손규태, 이신건 공역, 『나를 따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 *Widerstand und Ergebung*, 김순현 역,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서울: 복 있는 사람, 2024.

- Grenz, Stanley.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2001.
- Biermann, Joel. "Book Review: Jennifer Moberly,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A Study of Dietrich Bonhoeffer's Ethics in Relation to Virtue Ethic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8-2(2015), 240-245.
- Hauerwas, Stanley. "Bonhoeffer on Truth and Politics," Paper for Conference on Lived Theology and Civil Courage(2003), 1-19. \*<https://www.lived-theology.org/> (\*2025.7.26접속)
- \_\_\_\_\_.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Eugene, OR: Wipf & Stock, 2004.
- \_\_\_\_\_. "Friendship and Freedom: Reflections on Bonhoeffer's 'The Friendship,'" in Hauerwas, Stanley. *Working with Words: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OR: Cascade Books, 2011.
- House, Paul R. *Bonhoeffer's Seminary Vision: A Case of Costly Discipleship and Life Together*. Wheaton, IL: Crossway, 2015.
- Huber, Ryan. *Dietrich Bonhoeffer's Ethics of Formation*. Lanham, MD: Lexington Books, 2020.
- Loewe, Andreas, and Firth, Katherine. *Journing with Bohoeffer: Six steps on the Path of Discipleship*. Sydney Australia: Acorn Press, 2024.
- Moberly, Jennifer. *The Virtue of Bonhoeffer's Ethics: A Study of Dietrich Bonhoeffer's Ethics in relation to Virtue Ethics*. Eugene, OR: Picwick Pub., 2013.
- \_\_\_\_\_. "Visible and Hidden Discipleship: The Witness of Dietrich Bonhoeffer," in Hayes, Andrew, and Cherry, Stephen. *The Meanings of Discipleship*.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1.
- Morris, Kenneth Earl. *Bonhoeffer's Ethics of Discipleship: A Study in Social Psychology, Political Thought, and Religion*.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 Nolan, Kirk J. *Reformed Virtue After Barth: Developing Moral Virtue Ethics in the Reformed Tra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4. Wheaton, IL: Crossway, 2015.
- Sandu, Cristian. "Ethics in the Thought of Dietrich Bonhoeffer," *SCIENTIA*

*MORALITA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8-1  
(2023), 116-124.

Walker, Jon, *Costly Grace: A Contemporary View of Bonhoeffer's 'The Cost of Discipleship'*. Abilene, TX: Leafwood Pub, 2010.

논문투고일: 2026년 02월 13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08일

---

• 국 문 초 록 •

---

제자훈련이 넘쳐 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비판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토대로, 본회퍼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의 읽기를 시도하였다. 본회퍼의 제자도는 두 측면에서 현대적 대화의 가능성을 지닌다. 그 하나는 모벌리의 해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성품형성과 함양에 주목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하우어워스의 해석을 통하여 본회퍼가 죄의 고백과 용서의 공동체를 구현한 것에 주목하여 진실 말하기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길이다. 본회퍼의 제자도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에서 확인된 이러한 두 요소는 오늘의 제자훈련을 위한 통찰을 준다. 프로그램과 성경공부의 지평을 넘어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성품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의 제자훈련에 제자됨을 위한 문제의식이 진정성있게 정립되어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을 위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제자도, 사회적 영성, 책임, 소통, 공감, 환대

---